



보도자료

영천
청도 국회의원
이만희
자유한국당

2018. 10.12(금)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 784-5901 / FAX: 02) 788-0302 / E-mail: yc20002@naver.com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만희 의원, 농진청 연구인력 4명중 1명은
무늬만 연구원, 연구실적 全無**

- 농촌진흥청 연구인력 4명 중 1명은 연구 실적이 1건도 없는 ‘무늬만 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남. 농촌진흥청은 석·박사급 인재가 천명 가까이 모여 있는 국내 최고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싱크탱크임.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농진청 연구인력 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총 연구인력 1,193명 중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864명에 불과, 나머지 329명은 연구 인력이지만 본청 근무(79명), 보직자(84명), 연구지원(45명), 파견(35명) 등의 사유로 연구 수행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6년간 농진청 연구인력 운영 현황>

연도	총 연구인력			연구 수행건수가 없는 사유						
	연구 참여	연구 미참여	본청	보직	연구 지원	기타				
						합계	파견	휴직	미정*	
2013	1,198	873	320	87	80	55	98	56	25	17
2014	1,211	857	357	87	79	52	139	59	22	58
2015	1,198	900	302	85	81	53	83	44	31	8
2016	1,199	880	319	87	80	36	116	40	33	43
2017	1,189	874	317	86	86	45	100	48	24	28
2018	1,193	864	329	79	84	45	121	35	26	60*

※ 미정인원 : 신규발령자, 파견 복귀자 등 / * 신규발령자 34명 포함

- 연간 300명이 넘는 연구인원이 행정업무 등으로 연구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최근 6년간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미참여 인원수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그러다보니 연구인력 절반이상(61%)이 상대적으로 적은 1~2개의 과제만 수행하는 등 정부 출연연구원 연구수행 과제 수 최대 기준인 ‘3책 5공’ (연구책임자는 3개, 공동 참여자는 5개)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됨

< 최근 6년간 수행 연구과제수별 참여현황 >

연도	1과제	2과제	1+2 합계	비율 (%)	3과제	4과제	5과제	6과제 이상	합 계
2013	226	270	496	56.8	210	97	50	20	873
2014	225	275	500	58.3	185	114	41	17	857
2015	255	301	556	61.8	213	85	29	17	900
2016	222	298	520	59.1	202	102	38	18	880
2017	214	290	504	57.7	229	94	32	15	874
2018	234	293	527	61.0	193	98	35	11	864

- 이만희 의원은 “평균 인건비가 7,300만원에 달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비(非) 연구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인력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일뿐더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행정업무 등에 투입되어 연구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구감각 둔화, 연구 연속성 단절 등 연구성과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
- 이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데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박사학위까지 받고 연구직으로 근무하다 승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非연구업무(행정업무 등)를 수행한다면 국가적 손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연구인력 수급구조를 포함한 농진청의 인력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